

파업 노조원 속사정 보니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조의 파업은 고유가로 인한 수직악화가 발달...

“한달벌이 34만8천원...가족 부양 어떡하나”

화물연대 노조원은 1회 왕복 운임료 64만7천원 기름값 등 지출은 62만1천원

21t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조영수 화물연대 광주지부 금호타이어지회장의 차계부(車計簿)를 살펴보자.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기름값이다. 광주~군포간 300km를 왕복했을 때 드는 경유는 평균 230~240ℓ.

건설기계 노조원은 일하면 할수록 적자 허덕 작업비 조차 어음으로 받아

건설기계노조 박용순 광주·전남지부장은 15t 덤프트럭(구입가 8천500만원)을 운전하고 있다.

원이 든다. 식대와 톨게이트 비용, 지입료 등은 됐다. 박 지부장이 한달 일해 남은 돈은 34만8천원.



“화물연대는 빨갱이”

여수경찰서장 발언 파문

현직 경찰서장이 화물연대 파업대책을 논의하는 공식 석상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빨갱이’로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남신단 삼성전자 광주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200여명이 운송단가 협상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 중학교 72% 체벌 허용

시교육청, 수업 거부 여상고 감정적 체벌 등 조사

광주시내 중학교 10곳 중 7곳이 체벌을 허용하는 등 전체 초·중·고교 절반 가량이 교칙 상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낀 10억대 취업 사기 3명 검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한 대규모 취업사기 사건(본보 6월 13일자 8면)을 수사 중인 광주지부 경찰청은 13일 이 사건의 주범인 선씨(35)씨와 공범 S(37)씨·서부경찰서 K(35)경장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市 공무원이 취업 사기”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수천만원대 취업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dvertisement for 'Wangdo Hyeom' (왕도휴침대)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ed and promotional text about a 36-month interest-free installment pla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dvertisement for KCC (KCC)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contact numbers for sales and leasing.

Advertisement for 'Sungdam' (성담물) water, mentioning its benefits and availability at various locations.

Advertisement for a legal firm,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egal services.